

민주 새 원내대표에 '86그룹 리더' 이인영

결선투표서 김태년 누르고 원내사령탑 올라 지도부 '친문일색' 탈피...당청관계 변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인 이인영(54·서울 구로갑)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의 결선투표에서 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김 의원은 76표를 얻어 49표를 얻은 김 의원을 따돌렸다.

선명하게 분출되면서 갈등과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청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와 소통·협력의 첫 출발은 상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의 결정은 상임

위가 해당 부처를 주도하고, 이견이 생기면 청와대와 빈틈없이 조율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당정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상대적으로 주도권을 쥔 기존 상황에서 벗어나 당이 상임위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당청관계의 무게중심을 당으로 가져와 존재감을 키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청 간 '엇박자'가 두드러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원내대표는 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다.

부인 이보은(51)씨와 1남. ▲충북 충주(55) ▲충주 ▲고려대 국문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한반도재단 동북아전략연구소장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17·19·20대 국회의원 /김진수기자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왼쪽)이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평행대치...민주 "황교안 대권투쟁" 한국 "文정부 낙제점"

"추경 심사 등 현안 다룰 5월 국회 소집 불가피" 지적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반복점을 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회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립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교착 상태인 정국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빈손 종료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포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뒷전으로 밀린 현안을 다루기 위해 5월 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의 장

외투쟁에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황교안 대표를 직접 겨냥,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 뉴스를 보니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외투쟁이 과거에 야당의 저항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는 걸어질수록 역풍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무리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회를 불모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민생투쟁하겠다고 하는데 정

확한 표현은 대권투쟁"이라고 황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은 경남지역에서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전날 부산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을 선언한 황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줄속 행진이 된 게 아니냐"면서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들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닌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회에서 잇달아 당 회의와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를 전방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적이 곳곳에 곱팡이처럼 피어나고 있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다. 불법적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각종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등 불법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세 가지 악의 축으로 마이너스 정권이 되고 있다"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동안 주장했던 평화는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천정배, 세월호 전면재수사 국회 결의안 발의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8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고,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TF'가 유가족을 중복세력으로 분류하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민간인 감청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김진수기자



천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를 통해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지도 5년이 흘렀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그 진실 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세우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김동철, 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근거 법안 발의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생물자원관과 동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명 '통합 생물자원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광주와 전남 상생 차원에서 전남의 현안들도 적극 챙기고 있다"면서 "도시·연안 생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담당하게 될 목포 호남권생물자원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정인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법안 발의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8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확화 및 사업자 간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제도 미비로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



과 우선 분양전환 이전에 임대사업자간 매매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거 불안을 겪어왔다"며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 명확화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간 매매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포럼 광주의빛, '광주다운 주민자치' 토론회

광주다운 주민공동체를 함께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포럼 광주의 빛'은 9일 오후 4시 광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장과 김재철 광주전남선임연구원 등이 발제를 하고, 진귀수(광주시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 배철진(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공병철(광산구의원), 주경미(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김광관(광주시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진행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

장인 이정환 시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광산갑위원회 이용빈 위원장은 "주민활동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마을과제가 표출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0일 창립된 '포럼 광주의 빛'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광주다운 민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갈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외회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